

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 교회와 가정 위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. 항상
저희를 기도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.

그럼 다음에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평안하세요.

니카라과에서,

박태진, 정중은, 의술, 의담 올림